

제주도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제주도의 양돈업은 80년대까지 마당 한구석에 1~2두를 사육하는 부업양돈에서 84년 전국 소년체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화장실 개량이 마무리 되면서 당시 사육하던 토종돼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규모화된 현재의 양돈업이 본격 시작되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제주도에는 돼지 사육두수가 380농가에 315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어 호당 사육규모가 829두에 이르러 규모면에서는 세계적인 기업형태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육지와 154km 떨어져 있고, 면적이 1,845 km²으로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무공해 청정지역이며, 돼지 사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섬으로서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는 맛으로 유명하다. 87년까지도 제주도는 돼지콜레라가 매년 발생하는 돼지콜레라 상재지였으나 88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돼지 오제스키병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돼지전염병의 외부침입만 철저히 차단한다면 청정지역 선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97년 3월부터 돼지전염병(콜레라 및 오제스키병)청정화선언 단계별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학, 생산자단체, 양돈농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김 찬 홍
제주도 축정과

이를 위하여 97년 7월부터 돼지콜레라에 대한 기초조사(항원·항체검사)결과 항원은 전두수 음성이었고, 항체 양성률이 22.6%로서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접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98년 2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다른 지방에서 돼지를 제주도로 반입시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검역계류장에서 15일간 계류 검사후 음성축에 한하여 농가 입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99년 5월 1일부터는 다른지방에서 제주도로 반입되는 가축수송차량에 대하여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반드시 세차·소독 실시후에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99년 5월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 참석하여 제주도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실태를 보고한바 있다.

97년부터 3년간 돼지콜레라 및 오제스키병에 대한 항원·항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청정지역임이 확인되었고, 99년 11월13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학,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농가 등이 제주도청에서 합동 협의회

를 개최하여 청정지역선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마침내 '99년 12월 18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 박청정 농림부차관보,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강신정 제주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축산단체 및 농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는 최초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최초이지만 일본보다도 2년 정도 앞선 획기적인 일이며, 일본의 식육속보지에서도 크게 보도된바 있다.

그러나 돼지전염병 청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98년 11월 18일에는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서 돼지콜레라 13두가 발생하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였으나 발생농가에서 사육중인 1,305두 전두수를 신속히 살처분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의과학검역원 관계관을 비롯한 도, 시군, 전홍원의 방역담당자 합동으로 인근지역과 인근 읍면지역 양돈장까지 유사질병 발생여부 조사 및 방역지도, 농가교육을 실시한 것은 가족방역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들에게는 돈입식비 1백만원을 보급하여 지원한 미담사례가 있고, 또한 양돈농가에 방역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돼지 전염병은 청정지역 선포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양돈농가에서는 소독의 생활화, 차량, 사람 등의 농장 출입통제 등 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다른 지방에서 반입되는 돼지는 계류 검사기간을 현재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돼지수송차량 반입시에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활용시에는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후 급여하도록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른 지방에서 반입되는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대하여 제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위축돈 등 돼지콜레라 유사증상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6,000두의 돼지에 대하여 콜레라 및 오제스키병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항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진흥원, 시군, 공수의사, 축협 및 동물약품회사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돼지전염병 예찰반을 편성하여 재래돼지 사육양돈장, 소규모 양돈장을 포함한 전 양돈장에 대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정보교환을 위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돼지콜레라 및 오제스키병 발생시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위하여 양돈조합 및 협회가 합의를 전 양돈농가가 참여하는 방역자조금을 우선 1차로 1억원을 2000년 5월말까지 모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밝히려고 한다.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를 계기로 제주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국제공인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돼지고기 소비촉진은 물론 일본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현재 제주도에선 일본에 수출되는 돼지고기는 '99년도에 1,800여톤에 이른다. 맛있고 안전한 제주산 돼지고기는 다른 지방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된 섬인 만큼 국제적으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 공인받는데 문제가 없고, 중국에서 요구하는 지역개념도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제주도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를 위하여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양돈**